

월간 SW 산업 동향

2012. 9월호



- Package Software
- IT Service
- Embedded Software
- Open Source Software

CONTENTS

I. Summary	1
II. 월간통계	4
1.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5
2. SW산업 관련 통계	7
III. 국내외 정책 동향	13
1. 국내	14
2. 해외	23
IV. SW 시장 및 기술 동향	25
1. 부문별 시장 동향	26
2. SW 기업동향	39
V. 주요 리포트	46
1. 아마존의 신사업 성공 비결 : 레버리지 전략	47
2.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51
VI. 월간 SW 이슈 분석	56
1. 스마트워크 · BYOD 시대의 모바일 기기 보안	57
2.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	61

I . Summary



◆ 월간 통계

- 2012년 8월 SW 생산액은 2조 4,210억 원, 수출액은 1억 9,899만 달러
- 민간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 본격화 (SAS)
- 선두업체인 구글과 애플의 점유율 꾸준히 유지 (컴스코어)
- 2012년 세계 모바일 앱스토어(App Store)의 전체 다운로드 중 89%가 무료 애플리케이션인 것으로 예측됨 (가트너)
- 태블릿 PC 수요 강세 (IDC)
- 2012년 모바일 악성코드가 2011년 대비 약 700% 증가 (맥아피)
- 세계 61개국의 웹 경쟁력 비교 분석한 '웹 인덱스(Web Index)' 평가 결과에서 1위는 스웨덴, 한국은 13위로 나타남 (월드와이드웹재단)

◆ SW산업 국내외 정책

- (지식경제부) SW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합동 T/F 구성·발족, 범부처 차원의 『IT융합 확산전략 2013~'17』 발표, 『프로보노 IT 멘토링 봉사단』 발대식 개최, "RFID/USN Korea 2012" 전시회·컨퍼런스 개최, '12년도 구매조건부 SW자산재개발 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한-우즈베키스탄 정보화 협력 MOU 체결, 『정보공개모니터단』 활동 촉진 연찬회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지침 및 수준진단 방법 국가 표준 제정, 방통위-ITU, 역대 최고 ICT 올림픽 개최 추진, 통신사업자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법제화, 한국 모바일 보안 기술 국제 표준화 추진, 중소기업자의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기술지원 추진
- (국방부) 외산 GIS 국산 솔루션으로 교체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해 증거분석 수집 역량을 강화
- (방위사업청) 2013년 방위력 개선을 위해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4I)체계 확대 구축
- (日) 총무성 2013년도 ICT 예산 증액 요청
- (유럽회의) IT 조달 촉진을 위한 표준화 규정안 승인

◆ SW 시장 및 기술 동향

- (ERP)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ERP 시스템의 가용성 확보가 중요
- (CRM) CRM 기업들,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고객관계관리 솔루션 출시
- (SCM) (가트너) 현대자동차를 '자동차 완성차' 부문 공급망관리 경쟁력 세계 2위로 선정
- (IT서비스) 대형 IT서비스업체들 시스템통합(SI)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솔루션 개발 및 유통 사업을 확대, 중견IT서비스기업들,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시장 공략 나섬, 대형 IT서비스 기업들, 공공 사업본부 내에 '해외전담팀' 신설
- (임베디드SW) 임베디드SW업체, 차량용 보안SW시장 선점에 나섬, 임베디드 SW개발자들이 산업 발전과 정보 공유를 위해 개발자 모임을 활성화

◆ 주요 리포트

- 「아마존의 신사업 성공 비결 : 레버리지 전략」, 삼성경제연구소('12. 9)
 -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했고, 성공 비결은 적극적인 투자의 결과
-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KT경제경영연구소('12. 9)
 - 빅 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Personal data)'의 활용 가치 높아지면서 '프라이버시'에 관련 이슈가 부각

◆ 월간 SW 이슈 분석

< 스마트워크·BYOD 시대의 모바일 기기 보안 >

- 개인의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보안 이슈가 부각

<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 >

- 디지털 사이니지는 방송, 통신, 광고, 유통, 공공서비스 등 매우 다양한 산업이 연계된 성장 잠재성이 큰 산업으로 각광 받음

II. 월간통계



1.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가. SW 생산액 분석

- 2012년 8월 SW 생산액은 2조 4,210억 원,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
 - 패키지 SW 생산액은 3,12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
 -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해 대비 및 중소·중견 기업 특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성장세 회복 조짐
 - IT서비스 생산액은 2조 1,08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
 - SI 사업 비중 축소 등으로 성장세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솔루션 및 IT아웃소싱(ITO) 사업 확대 등 경쟁력 확보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월별 SW 생산액 추이(단위: 억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패키지 SW	2012년	3,003	3,273	3,853	3,151	3,325	3,757	3,262	3,122
	2011년	2,668	2,769	3,163	2,915	2,851	3,211	3,147	2,964
	증감	12.5%	18.2%	21.8%	8.1%	16.6%	17.0%	3.6%	5.3%
IT 서비스	2012년	18,660	19,104	20,621	19,999	20,998	24,138	22,042	21,089
	2011년	17,334	17,949	20,789	19,022	20,675	21,911	19,961	19,785
	증감	7.6%	6.4%	-0.8%	5.1%	1.5%	10.2%	10.4%	6.6%
합계	2012년	21,663	22,378	24,474	23,150	24,323	27,896	25,303	24,210
	2011년	20,002	20,718	23,952	21,938	23,526	25,122	23,109	22,750
	증감	8.3%	8.0%	2.2%	5.5%	3.3%	11.0%	9.5%	6.4%

※ 생산액 수치는 잠정치

자료: KEA(2012. 9)

나. SW 수출액 분석

- 2012년 8월 SW 수출액은 1억 9,899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1% 증가
 - 패키지 SW 수출액은 8,403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9.2% 증가
 - 의료 분야 솔루션의 중동 진출, 보안 솔루션의 동남아, 중국 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세 가속화
 - IT서비스 수출액은 1억 1,497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8% 증가
 - 시스템통합(SI), 전자정부, 금융IT 등의 동남아 수출이 증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

월별 SW 수출액 추이(단위: 천 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패키지 SW	2012년	20,220	21,817	25,824	26,505	45,568	66,174	75,704	84,032
	2011년	21,268	19,118	28,813	20,614	22,535	34,716	25,842	25,524
	증감	-4.9%	14.1%	-10.4%	28.6%	102.2%	90.6%	192.9%	229.2%
IT 서비스	2012년	77,183	79,643	96,418	121,334	151,916	118,413	98,039	114,965
	2011년	73,115	72,381	91,267	88,603	85,983	84,449	80,921	92,827
	증감	5.6%	10.0%	5.6%	36.9%	76.7%	40.2%	21.2%	23.8%
합계	2012년	97,403	101,460	122,242	147,839	197,484	184,587	173,743	198,997
	2011년	94,383	91,499	120,080	109,217	108,518	119,165	106,763	118,351
	증감	3.2%	10.9%	1.8%	35.4%	82.0%	54.9%	62.7%	68.1%

※ 수출액 수치는 잠정치

자료: KEA(2012. 9)

2. SW산업 관련 통계

가. 민간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 민간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 본격화

- (SAS) 60%의 기업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업 전개 시 적극적으로 활용
 - 67%가 기업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업무 처리가 중요하다고 응답
 - 60%는 빅데이터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또는 인력 배치 등을 전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기업의 성과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문으로 전략적 의사 결정, 고객 서비스, 운영 효율성 등을 꼽음
- 대부분의 기업들은 데이터분석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 기업 관리자들 가운데 41%가 기업의 빅데이터 처리능력 향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데이터 처리기술 및 전문인력의 부족을 지목
 - 또한 유효성 데이터확보 부족(39%), 데이터관리 프로세스 미정립(38%), 등도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과제로 꼽히고 있음

기업들의 빅데이터 중요성 인식정도 및 빅데이터 적용수준 조사 결과



자료: SAS (2012. 9)

나. 미국 모바일 플랫폼 시장 점유율 현황

- 선두업체인 구글과 애플의 점유율 꾸준히 유지
 - (컴스코어) 상위권에 비해 점유율 하위권 업체들은 점차 비중 축소
 - 분기별 시장 점유율에서 점유율 1위인 구글은 1분기 50.8%에서 52.2%로 1.4% 상승, 2위인 애플도 31.4%에서 33.4%로 2.0% 상승
 - 3, 4, 5위인 리서치인모션(RIM), MS, 심비안 플랫폼은 모두 2분기 점유율이 1분기보다 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 분기 대비 7% 증가한 1억 천4백만 명 이상 기록

2012년 1분기-2분기 미국 스마트폰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 변화

	1분기 점유율	2분기 점유율	점유율 변동
전체	100%	100%	-
구글	50.8%	52.2%	1.4
애플	31.4%	33.4%	2.0
리서치인모션	11.6%	9.5%	-2.1
마이크로소프트	4.0%	3.6%	-0.4
심비안	1.3%	0.8%	-0.5

자료: 컴스코어 (2012. 9. 5)

다. 세계 모바일 앱스토어 현황

- 2012년 세계 모바일 앱스토어(App Store)의 전체 다운로드 중 89%가 무료 애플리케이션인 것으로 예측됨
 - (가트너) 세계 모바일 앱스토어 다운로드 중 무료 다운로드가 406억 건 (89%), 유료 다운로드가 50억 건(11%)을 차지
 - 무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비율은 2011년 88.4%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9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향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 다양한 산업의 앱스토어 등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 예측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성장은 플랫폼 사업자, 디바이스 및 통신서비스 업체 등 다른 기타 다양한 사업자들에 의해 가능
 - 하지만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공급은 아직도 애플, 구글, MS 등 글로벌 운영체제(OS)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앱스토어에 의해 이루어짐
 - 애플은 2012년 현재 25%의 점유율로 모든 앱스토어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임

2011-2016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단위: 십만 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무료 다운로드수	22,044	40,599	73,280	119,842	188,946	287,933
유료 다운로드수	2,893	5,018	8,142	11,853	16,430	21,672
전체 다운로드수	24,936	45,617	81,422	131,695	205,376	309,606
무료 다운로드 비율	88.4%	89.0%	90.0%	91.0%	92.0%	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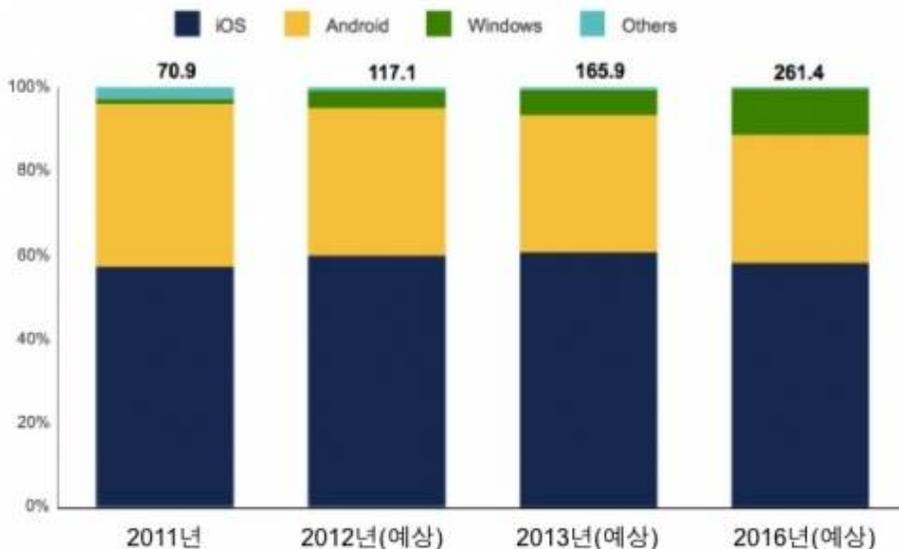
자료: 가트너 (2012. 9. 11)

라. 세계 태블릿 PC 및 OS 동향

□ 태블릿 PC 수요 강세

- (IDC) 2012년 태블릿 PC 출하량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9% 가량 상향 조정
 - MS의 윈도우 8 태블릿과 윈도우 RT 등이 새로운 모멘텀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당초 1억700만대 예상에서 1억1천710만대로 상향 조정
 - 2011년 출하량 6천900만대에서 70% 가량 늘어난 수준
- 애플의 태블릿 시장 점유율은 2012년 60%이며, 2016년에도 58%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안드로이드는 올해 태블릿 시장의 35% 수준을 점유하며, 향후 4년 간 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MS의 태블릿 시장 점유율은 4%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6년에는 11%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태블릿 PC 출하량 및 OS별 점유율 (단위: 백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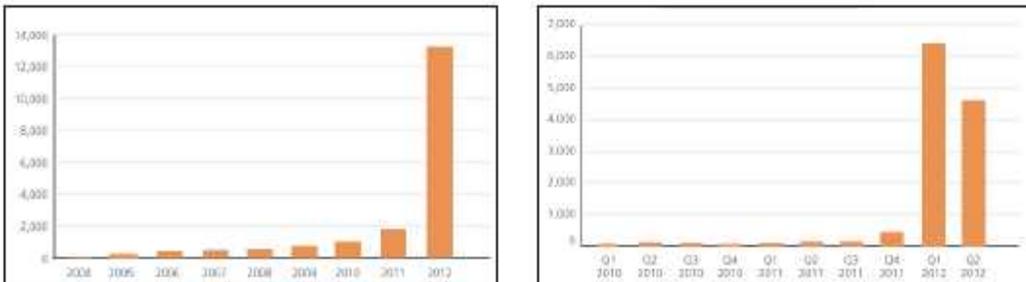


자료: IDC (2012. 9. 21)

마. 세계 모바일 보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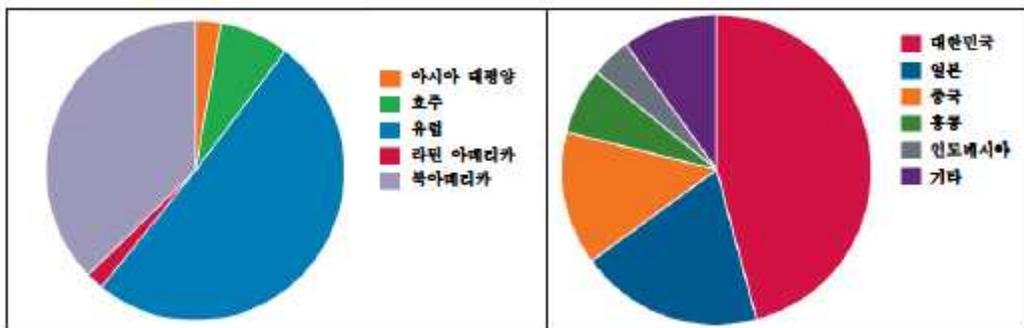
- 2012년 모바일 악성코드가 2011년 대비 약 700% 증가
 - (맥아피) 2012년 2/4분기 보안 위협 통계 보고서에서 상반기에만 지난해 대비 7배의 모바일 악성코드가 발견됐음을 발표
 - 총 13,000여종의 신규 모바일 악성코드가 등장 (2011년은 1,800여종)
 - 주요 타겟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가 80% 이상을 차지, 기존과 비슷한 수준
 - 악성코드의 아시아 지역 유포지 중 한국이 가장 큰 비중 차지
 - 전세계적으로 악성코드 유포지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80%, 아시아 지역 중 대한민국에 45%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연차(좌) 및 분기별(우) 모바일 악성코드 발견 통계



자료: 맥아피 (2012. 9. 6)

전세계(좌) 및 아시아(우) 악성코드 유포지 현황



자료: 맥아피 (2012. 9. 6)

바. 국가별 웹 경쟁력 현황

- 세계 61개국의 웹 경쟁력 비교 분석한 ‘웹 인덱스(Web Index)’ 평가 결과에서 1위는 스웨덴, 한국은 13위로 나타남
 - (월드와이드웹재단) 올해 처음 발표된 ‘웹 인덱스’는 각 국의 1) 통신망 및 제도적 인프라 준비도, 2) 웹 콘텐츠 및 웹 활용 현황, 2)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산출
 - 스웨덴은 100점으로 글로벌 웹 경쟁력 1위 국가로 선정, 미국, 영국, 캐나다가 2, 3, 4위를 기록
 - 한국은 종합 평점 81.06점으로 조사대상 61개국 가운데 13위에 올랐으며,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기록
 - 한국은 웹 활용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5위)과 통신망 인프라(9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웹 콘텐츠(22위) 및 제도적 인프라(17위)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

국가별 ‘2012 웹 인덱스’ 평가 결과

순위	국가명	웹인덱스
1	스웨덴	100
2	미국	97.31
3	영국	93.83
4	캐나다	93.42
5	핀란드	91.88
11	싱가포르	86.14
12	아이슬랜드	86.1
13	한국	81.06
20	일본	68.56
29	중국	51.72

자료: World Wide Web Foundation (2012. 9. 6)

Ⅲ. 국내외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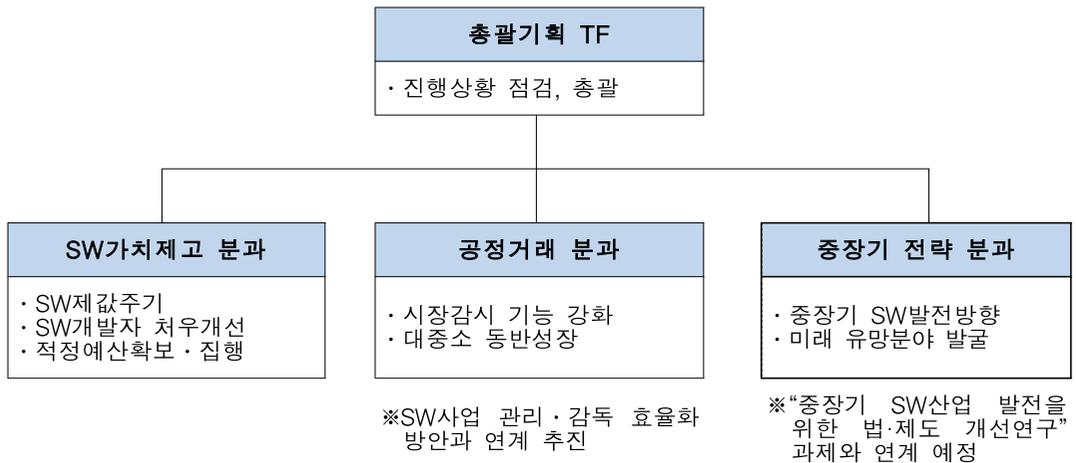


1. 국내

가. 지식경제부

- SW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합동 T/F 구성·발족 (2012. 9. 7)
 - SW가치인식 제고,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연내 집중 추진할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SW산업계·학계·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 SW산업발전을 위한 kick-off 회의를 개최
 - 이번 발족된 T/F는 총괄기획 분과를 중심으로 △SW가치제고 분과, △공정거래 분과, △중장기 전략 분과 등 3개 분과를 횡적·종적으로 연계하여 실행력 높은 과제를 집중 발굴·마련할 예정

SW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합동 T/F 운영(안)



- 범부처 차원의 『IT융합 확산전략 2013~'17』 발표 (2012. 9. 7)
 - 이번 전략은 5대 산업* 및 5대 서비스** 총 10대 분야를 대상으로 주력산업의 융합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IT융합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표
 - * IT융합에 따른 경제력 파급력이 큰 5대 산업: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섬유, 국방·항공, 에너지

- ** 인구구조나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5대 서비스: 먹을거리, 교육, 헬스케어, 재난·안전, 교통
- IT융합 신시장 창출에 필요한 핵심 IT융합 기술 개발과 함께 성공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시장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임
 - 10대 전략 산업 분야의 개별 정책과제 추진과 병행하여 융합 R&D체제 개편, 표준화, 창의인재양성 등 공통의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 『프로보노 IT멘토링 봉사단』 발대식 개최 (2012. 9. 20)
 - IT기업과 유니세프, 채널IT 등과 함께 사회공헌 문화 확산 및 IT인력양성을 위해 「프로보노 IT멘토링*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
 - * 프로보노 IT멘토링 : 사회공헌 성격의 IT멘토링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멘토(기업)는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 멘티(학생)는 IT실무 기술 및 지식을 전수 받음으로써 동반성장 기회 제공
 - 이날 행사에는 윤상직 지경부 1차관, 진화근 한화S&C 대표, 한정섭 KCC정보통신 대표, 이재일 삼성전자 인재개발센터장, 김현중 한글과컴퓨터 이사, 윤두식 지란지교소프트 연구소장 등 5개 IT기업 대표가 참여
 - 프로보노 IT멘토링 활동을 선언하고 후배들에게 IT분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지식나눔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채널 IT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기업의 지식 나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여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

- "RFID/USN Korea 2012" 전시회·컨퍼런스 개최 (2012. 9. 25)
 - 유망 신산업인 RFID/USN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조망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RFID/ USN Korea 2012" 행사를 9.25(화)~27(목)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 올해 8회째를 맞는 동 행사는 '스마트 센싱으로 IT융합 가속화!'라는

주제 하에, 최근 산업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IT융합 추세에 맞춰 IT융합의 핵심기반으로서 RFID/USN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자리로 개최

□ '12년도 구매조건부 SW자산재개발 사업 추진 (2012. 9. 26)

- 기술적으로는 우수하나 실제 사업화가 어려웠던 SW 기술이나 제품을 정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매입하고, 구매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재개발지원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
-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보유 SW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국내 중소 SW기업 및 기관(대학, 연구소 등) 대상으로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8개 기술을 매입

‘12년도 구매조건부 SW개발 과제

구분	기술명	기업
1	Push 서비스 제공 SW	DKI테크놀로지
2	원격시스템모니터링 SW	엔써티
3	DB 무중단 시스템 SW	JK데이터시스템즈
4	클라우드 검역 기반의 통합 엔드포인트 호스트 NAC SW	세이퍼존
5	UI/UX Engine SW	아로마소프트
6	스마트기기 GPS를 활용한 골프장 경기관제 및 운영시스템	폴
7	N스크린이 가능한 웹기반 저작방식 애플북 제작 SW	엔소프트
8	증강현실저작도구	시지웨이브

- 9.27~10.26까지 한달간 공모를 통해 정부가 매입한 SW를 구매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매각할 계획
- 응모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목적,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보유 기술 수준 및 사전준비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 선정된 기업에게는 각 과제당 2억원 이하의 재개발비용과 GS인증 등 테스트 비용, SW품질관리 지원 등도 지원할 계획

나. 행정안전부

□ 2012 국제 통합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2012. 9. 4)

- 9월 4일(화)부터 9월 5일(수)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ISEC 2012(Information Security Conference, 제6회 국제 통합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
- ISEC 2012는 정부와 민·산·연 등 보안책임자(Chief Security Officer) 등 국내외 보안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통합 정보보호 컨퍼런스
- 이번 행사는 해킹방어 시연, 정보보호 솔루션 EXPO, 제어시스템 보안연구회 정보보호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2012. 9. 5)

- 수도권 9개 지역 스마트워크센터(이하 “센터”) 이용부처인 총리실 등 36개 중앙부처 인사 및 정보화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 그간 행안부가 중점 추진해온 ‘스마트워크 이용 활성화’를 위한 10대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경과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진행

스마트워크 이용활성화 10대 핵심 추진과제

- ① 스마트워크센터 정기근무자 선발을 위한 인력풀 구성
- ②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직무 편람 작성·제공
- ③ 스마트워크 관련 제도 및 지침 마련
- ④ 장기교육자 대상 월 1회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일’ 지정
- ⑤ 無보직, 未발령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활용장려
- ⑥ 중앙부처 장·차관 대상 스마트워크센터 체험근무 추진
- ⑦ 스마트워크센터 공공기관 직원 근무좌석 확대
- ⑧ 콘텐츠 제작 등 스마트워크센터 홍보 강화
- ⑨ 이용만족도 조사 등 불편사항 개선
- ⑩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집계 및 선도 부처 지정

자료: 행정안전부(2012. 9. 4)

□ 한-우즈베키스탄 정보화 협력 MOU 체결 (2012. 9. 20)

- 이번 MOU 체결은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이 자국의 IT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음
- 이는 IT 강국인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 「한-우즈베키스탄 정보화 협력 MOU」는 전자정부 등 정보화 정책 및 기술지원, 인력교류 활성화,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정보화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또한 양국은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

□ 『정보공개모니터단』 활동 촉진 연찬회 개최 (2012. 9. 14)

-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 증진 등 정보공개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함께 모여, 모니터 요원의 활동 촉진과 업무 연찬을 위한 자리가 마련
- 정보공개모니터단은 공공기관이 사전 공개해야 할 정보들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공개정보를 검색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추가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없는지 등을 직접 모니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다. 방송통신위원회

-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지침 및 수준진단 방법 국가표준 제정 (2012. 9. 7)
 -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 구축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지침과 데이터센터의 그린화를 자체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수준 진단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지침 표준을 국내 데이터 센터에 적용할 경우에 연간 4억 4,000만 KWh의 전력량을 절약하고 44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

- 방통위-ITU, 역대 최고 ICT 올림픽 개최 추진 (2012. 9. 10)
 - 방송통신위원회 이계철 위원장은 9월 10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하마둔 뚜레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201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제19차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MOU를 체결
 - 방통위는 가까운 시일 내에 ICT 전권회의 공식 준비조직을 출범 시키고, 한국적 ICT 의제 발굴, 국내 ICT 기업의 세계 진출 기회 마련을 위한 ICT 전시회 기획 등 본격적인 2014 ITU 전권회의 개최 준비에 돌입할 계획

- 통신사업자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법제화 (2012. 9. 18)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 민생안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포함

□ 한국 모바일 보안 기술 국제 표준화 추진 (2012. 9. 18)

-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ITU-T 정보보호 연구반(SG 17) 9월 회의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다중 인증 메커니즘』에 관한 표준화를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
- 이번 결정에 따라 ITU에서는 2015년까지 다양한 인증 메커니즘들을 복합적(아이디/패스워드+공인인증서, 아이디/패스워드+보안토큰, 아이디/패스워드/바이오토큰 등)으로 결합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다중 인증 메커니즘 표준을 개발할 예정

□ 중소기업의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기술지원 추진 (2012. 9. 18)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주민번호의 수집 입력창을 삭제하고 시스템을 변경해주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
- 금번 사업추진으로 중소기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이나 이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주민번호 없는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 『미래인터넷지원센터』 개소 (2012. 9. 18)

- 스마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등 미래인터넷 분야의 창의적인 융합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인터넷지원센터”를 9월18일 개소
- 미래인터넷지원센터는 미래인터넷 정보시스템(www.fi-korea.kr)에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법률, 특허, 재무관리 분야의 기술 및 경영기법 등에 대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
- 최신 기술 동향, 컨설팅 자료 등 전문화된 DB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

미래인터넷지원센터 온라인 컨설팅 프로세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9. 18)

- 부산지역 기업대상 『찾아가는 ICT 수출상담회』 개최 (2012. 9. 18)
 - 부산지역 소재 ICT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관련 전문가 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ICT 수출상담회」를 부산문화콘텐츠 콤플렉스에서 개최
 - 「찾아가는 ICT 수출상담회」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진출 온·오프라인 상담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The Clouds 2012』 행사 개최 (2012. 9. 18)
 -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및 기술동향, 활성화 정책 등의 정보 공유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The Clouds 2012』 행사를 개최
 - The Clouds 2012 그랜드 컨퍼런스, 아시아 클라우드 국제 포럼, 클라우드 컴퓨팅 포럼, 모바일 클라우드 컨퍼런스,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센터 클라우드 심포지엄, The Clouds 전시회 등 국내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
 - 공공·교육·로봇·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클라우드의 융·복합 기술 적용사례 및 서비스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클라우드가 주도하는 미래 산업의 방향 및 발전 방안을 제시

라. 국방부

- 외산 GIS 국산 솔루션으로 교체 (2012. 9. 19)
 - '국방시설·군수·재정 통합기반체계 구축 사업'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에스리의 '아크GIS' 엔진을 국산 솔루션으로 변경
 - 윈도, 리눅스, 유닉스를 비롯해 맥 OS까지 지원하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의 GIS 솔루션인 '인트라맵(IntraMap)'으로 변경

마.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해 증거분석 수집 역량을 강화 (2012. 9. 23)
 - SW, 콘텐츠 등에 대한 온라인상의 침해가 늘고 있는 것에 대응,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진행
 -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증거수집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증거수집 역량을 강화

바. 방위사업청

- 2013년 방위력 개선을 위해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4I)체계 확대 구축 (2012. 9. 25)
 - 2013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안이 C4I구축 등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10조5,171억 원으로 책정
 - 전작권 전환대비, 북한 현존위협 대응, 전면·잠재 위협 대비, 방위산업 육성·지원 등 목표를 위해 예산 투입

2. 해외

- 日, 총무성 2013년도 ICT 예산 증액 요청 (2012. 9. 7)
 - 총무성이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13년도 일반회계 기준 예산액은 17조 8,557억 엔으로 2012년도의 17조 4,526억 엔보다 4,031억 엔이 증액
 -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특히 ‘액티브 ICT재팬(Active ICT Japan) 전략’ 추진예산으로 1,312.1억 엔을 책정
 - ‘액티브 ICT재팬’ 전략은 서비스 분야의 ICT 활용, 빅데이터 및 콘텐츠 기반 신시장 창출, 인프라 강화, 사이버 보안 향상 등 ICT 전반을 포괄
 - 전반적인 IT 예산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IT 부문에서는 여전히 성장 기회가 있다고 예상
 - 정보보안, 데이터센터 통합, 시스템 현대화,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및 빅데이터 솔루션 도입 등에서는 시장 기회가 높다고 언급

‘액티브 ICT 재팬’전략 추진을 위한 2013년도 예산안 개요

액티브 ICT재팬	1,312.1억 엔
환경,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ICT 활용 추진	68.7억 엔
빅데이터 및 오픈데이터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	89.3억 엔
견고한 차세대 정보통신 기반 구축	1,044.1억 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구현	36.6억 엔
스마트 TV 등 신규 콘텐츠 서비스 창출	5.5억 엔
ICT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	67.9억 엔

자료: 일 총무성(2012. 9. 7)

- 유럽의회, IT 조달 촉진을 위한 표준화 규정안 승인 (2012. 9. 12)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IT 규격을 포함한 새로운 표준화 구축 시스템 도입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EU 전체 회원국의 IT 조달 활성화 및 경제성장 견인 기대
 - 유럽의회는 IT 조달 분야를 포함한 표준화 개발 과정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 참석 674명 중 찬성 639표(반대 18표, 기권 17표)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
 - 새 규정안은 유럽경제성장 확대를 위한 EU의 유럽 단일시장법 (Single Market Act) 제정 추진 방안 중 첫 번째 성과
 - 새 규정안은 EU 표준화 개발 과정 현대화를 통해 유럽 기업들의 생산비용 절감, 모범사례 구축, 경제성장 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
 - 유럽위원회(EC) 발표에 따르면, 유럽 내 표준 활용을 통한 경제 효과는 연간 35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 새 표준화 규정안은 2013년 1월 1일 발효되며, EU 27개 모든 회원국에서 곧바로 적용
 - 새로운 규정안은 또한 개별 국가 및 EU 수준에서의 표준화 시스템 구축에 있어 다양한 플레이어(표준화 기관, 정부 기관, 민간기업) 간 협력 방침을 규정
 - 이를 통해 ①명확한 책임 분배, ②관리상 장애 요인 통제, ③상호 양립할 수 없는 표준 발생 사전 방지 등 기대

IV. SW 시장 및 기술 동향



가. 패키지 SW 시장 동향

1)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ERP 시스템의 가용성 확보가 중요
 -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ERP 시스템의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우려됨
 - ERP 시스템의 가용성에 대한 고민이 최근의 ERP 구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 일부 기업들은 ERP 시스템의 서버 이중화로 하드웨어 장애에 대비하고 있지만, ERP 시스템의 중요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지진 등 재해에 매우 취약
 - 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장애 대비 시스템 및 네트워크 이중화, 데이터 복구 체계 구축, 국지적 재해(태풍·지진·홍수·화재 등)와 국가적 재해(폭동·전쟁 등)에 대비하는 재해복구(DR) 시스템 도입을 검토가 필요
 - (HP) ERP 시스템을 포함한 전 시스템의 가용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이중화 체계를 도입하고, 미국 내 3개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DR 환경을 구성
 - (IBM) ERP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대륙 간 DR를 구성해 재해에 대비

2)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CRM 기업들,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 출시
 - 각 기업마다 CRM 전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연동이 가능하도록 솔루션 개발
 - (핑거포스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올인원 CRM 솔루션 '핑거 CRM 스위트'를 출시
 - (공영DBM) 통합고객관리, 영업관리, VOC관리, A/S관리, 콜센터, 캠페인 등 CRM 전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 '모나크 8.0' 출시
 - (메이븐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ERP 사업을 확장해 중견기업 솔루션에서 중소기업 솔루션과 고객관계관리(CRM) 영역까지 다각화

3)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가트너) 현대자동차를 '자동차 완성차' 부문 SCM(공급망관리) 경쟁력 세계 2위로 선정
 - 각 업체의 자산순이익률, 재고회전율, 매출성장률, 전문가의견을 종합해 순위를 매겨 현재자동차가 2위를 차지
 - 세계 자동차 산업이 '수요 창출' 전략으로 보급량 규모를 산정하고 있어 지금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라고 분석
 - 전통적인 '푸시' 방식을 넘어서 판매자가 판매를 이끌어야 하고 자사의 공급망을 쇠신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 즉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SCM에 초점을 맞춰야함

가트너가 발표한 자동차 완성차 부문 SCM 순위

자동차 분야 순위	2012년 전체 순위	업체	자산 순이익률	재고 회전율	매출 성장률	종합점수
1	26	포드	7.1%	16.4%	2.3%	2.17
2	31	현대	8.7%	18.0%	12.6%	1.95
3	35	BMW	2.9%	5.7%	11.8%	1.92
4	42	타타모터스	3.3%	5.9%	44.0%	1.75
5	55	파카	4.2%	19.3%	28.4%	1.61
6	59	폭스바겐	4.2%	5.6%	17.5%	1.54
7	69	토요타	0.6%	11.7%	-6.6%	1.41

자료: 가트너

나. IT서비스 시장 동향

- 대형 IT서비스업체들 시스템통합(SI)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솔루션 개발 및 유통 사업을 확대
 - 삼성SDS, LG CNS 같은 대형 IT서비스기업들은 수익구조가 악화된 SI사업보다는 자체 솔루션 개발을 확대
 - 중견 IT서비스 기업의 SW·HW 유통 비즈니스는 해외 기업과 협업으로 확대하는 추세
 - 대기업이 공공 정보화 시장 진입이 제한되면서 솔루션 사업과 IT 아웃소싱(ITO)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남

IT서비스 기업들의 솔루션 사업 공급 동향 및 확대 추이

기업	내용
삼성SDS	-공급망관리(SCM)·생산관리시스템(MES) 등 제조 및 모바일 분야에서 대외 솔루션 공급 사업을 확대
LG CNS	-‘자체 솔루션 기반 사업 전환’ 비전에 맞춰 올해 연이어 제조·공공 분야 2개 솔루션을 선보임
SK C&C	-내년부터 시작되는 4차 중장기 사업전략 중 하나로 ‘솔루션 기반 사업 및 수익구조 혁신’을 내세워 다수의 자체 및 유통 솔루션을 보유
포스코ICT	-전 그룹사에 ‘스마트ECM’ 보급을 확대, 문서 보안 및 생산관리 시장 공략을 강화
DK유엔씨	-전자콘텐츠관리(ECM)·제품수명주기관리(PLM)·보안 등 SW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물량 확대를 통한 유통 사업 확대
현대U&I	-자체 물류 솔루션을 해상 중심에서 육상물류까지 포함토록 확대 -SAP와 손잡고 ‘물류관리(TM)’ 솔루션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물류 SI사업 중심에서 물류 솔루션 사업자로 변화를 모색
현대BS&C	-오라클 전자자원관리(ERP)·인사관리(HR)와 자체 MES 및 EMS 솔루션 사업을 2012년부터 확대
동양네트웍스	-‘자산운용솔루션’을 비롯해 오라클 HR 솔루션 공급을 확대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중견IT서비스기업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시장 공략 나섬
 - 대형 빌딩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관리시스템인 ‘BEMS’ 시장에 중견 IT서비스기업들이 진출
 - 건설경기 침체로 위축됐던 국내 BEMS 수요가 최근 전력관리에 비상이나 혁신도시건설 등으로 급증

중견IT서비스기업들의 BEMS 시장 진출 내용

기업	내용
롯데정보통신	-‘나주 그린 스마트 시티 구축 시범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수행할 예정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단지 및 제주 롯데호텔과 제주 롯데마트에 BEMS를 구축해 운영
포스코ICT	-포스코건설과 함께 H.E.E.(효, 희, Home Energy Economizer)라는 자체 브랜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선보임 -2012년 3월 국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젠과 총판계약을 체결
코오롱베니트	-빌딩자산관리 회사에 적합한 시스템(GBAMS, Green Building Asset Management System)을 개발 -프랜차이즈 기업이 전국 수백 개 매장의 온실가스과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가맹장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도 곧 적용할 예정
한화S&C	-2015년까지 1단계로 에너지 수요관리분야 솔루션을 개발, 2016년부터 2단계로 도시보다 작은 개념인 CEMS(Community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사업화에 매진할 예정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대형 IT서비스 기업들, 공공사업본부 내에 ‘해외전담팀’ 신설
 - 법 개정으로 공공정보화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국내에 적용한 전자정부 사례를 토대로 해외 수출을 강화
 - 이를 위해 공공사업본부 내에 해외 사업 전담 조직을 설립, 해외 사업 조직 개편에 나섬

주요 IT서비스 3사의 공공 사업 조직 개편 현황

기업	내용
삼성SDS	-2012년 7월 공공본부 내에 공공해외사업개발팀을 신설했으며 기존 글로벌사업본부 산하에 있던 팀을 공공본부로 이관 -공공해외사업개발팀은 공공본부 내에서 해외 전자정부 사업 등 발굴을 전담
LG CNS	-2012년 공공·SOC사업본부 내에 '해외사업개발팀'을 신설해 운영 -사업부별로 흩어져 있던 해외 사업 인력을 모아 해외 전자정부 사업 발굴을 맡도록 함 -'해외 법무팀'도 신설, 해외 사업의 수주 및 계약,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인 사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
핸디소프트	-2012년 5월 공공사업본부 내에 해외 전자정부 사업 개발을 위한 테스크 포스(TF)를 조직 -2012년 초에 각 사업부 산하에 있던 미국·중국법인 등 해외법인을 CEO 직속 조직으로 개편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다. 임베디드SW 시장 동향

- 임베디드SW업체, 차량용 보안SW시장 선점에 나섬
 - 자동차에 SW 비중이 커지면서, 차량용 보안 SW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국산 차량용 임베디드SW 개발업체들은 차량용 보안 SW 개발하거나, 해외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고 판매를 시작

임베디드SW 개발업체들의 보안SW시장 선점 내용

기업	내용
인포뱅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8월부터 10억 원을 투자해 차량용 보안SW를 개발 - 전자제어장치(ECU) 안에 탑재돼 외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SW 출시 예정
MDS테크놀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보안업체와 네트워크 보안SW에 대한 국내 공급계약을 맺음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임베디드 SW개발자들이 산업 발전과 정보 공유를 위해 개발자 모임을 활성화
 - (임베디드SW산업협의회) 그동안 침체됐던 임베디드SW 개발자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KELP와 KOSR 등 국내 임베디드SW 개발자 모임이 연계해 정보교류 공간을 마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임베디드SW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 개발자들이 2주일에 한 번씩 모여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동향과 실제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라. 공개 SW 시장 동향

- 리눅스 등 공개 SW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연말까지 진행
 - 공공기관 등에서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공개 SW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오픈소스SW 관련 행사가 열려 공개 SW에 대한 관심과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10월부터 연말까지 코리아 리눅스 포럼, 공개SW 개발자 대회 등 공개 SW 관련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림

공개 SW 관련 주요 행사

행사명	일시	주요 내용
코리아리눅스포럼	10월 11~12일	-리눅스 창시자 토발스 참석, 리눅스 커널, 안드로이드, 타이젠 등 기술동향
제 1회 클라우드 & OSS 컨퍼런스	11월 6일	-클라우드 구축 및 활용, 공개 SW 기술
공개 SW데이	11월 27일	-공개SW 개발자 대회 시상식, 세미나
2012 자유&오픈소스SW 컨퍼런스	11월 29일	-공개SW 활용 방안
한중일 공개SW 활성화 포럼 그룹 성과물 공유	11월 12~13일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4개 워킹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마. 신사업 시장 동향

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공략을 위해 기업들의 기술 협력이 늘어남
 - KT-시트릭스, 시스코-EMC 등 기업들이 각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클라우드 사업자에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 (KT-시트릭스) KT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관리 해온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포괄적인 엔드-투-엔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시스코-EMC) 고객들의 클라우드 구현을 가속화 할 새로운 조인트 레퍼런스 아키텍처인 '브이스펙스(VSPEX)' 제공과 함께 향상된 채널 파트너 인센티브 제도와 통합형 고객 지원 정책을 추진

2) 모바일(Mobile)

- IT서비스기업, 스마트워크 확산과 함께 '모바일 사업' 가속도
 - 삼성SDS, LG CNS 같은 대형 IT서비스기업들이 스마트워크 확산의 영향으로 모바일 사업에 집중
 - 기업 내부 업무환경을 모바일화하는데 초점을 둔 'MEAP(모바일 전사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솔루션 사업에 주목

주요 IT서비스 기업의 모바일 사업 내용

기업	내용
삼성SDS	-단순한 MEAP 솔루션 뿐 아니라 각 기업 환경에 맞게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 -자체 개발한 모바일 통합 플랫폼인 SEMP(Secure Enterprise Mobility Platform)를 이용

LG CNS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MEAP 영역 뿐 아니라 기업이 고객 소비자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MCAP(Mobile Consumer Application Platform, 모바일 고객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영역 까지 지원
SK C&C	-메트라이프차이나생명에 태블릿 기반의 '모바일 영업지원 시스템(MOS, Mobile Office System)'을 구축, 운영을 시작 -MOS에 자체 개발한 MEAP 솔루션 '넥스코어 모바일'을 적용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중소SW기업,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MEAP) 시장 공략 본격화
 - 국내 MEAP 솔루션 시장은 SAP와 IBM, 사이베이스 등 외산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
 - 원더풀소프트 등 중소SW기업들은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영업 방식에 변화를 주면서 MEAP 시장 공략을 본격화

중소SW기업들의 MEAP 시장 공략 내용

기업	내용
원더풀소프트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MEAP 솔루션 '엠-비즈메이커(m-Bizmaker)'를 중소기업 환경에 맞도록 최적화시켜 중소기업용 MEAP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
마인드웨어그룹	-MEAP 솔루션인 '엠케이드'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섬 -2012년 3월 국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젠과 총판계약을 체결
SK C&C	-초보자도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HTML 임포팅' 방식의 MEAP 솔루션 '엔츠미FX'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

자료: 각 사 보도자료

3) SNS(Social Network Service) & Social Media

- 포털 업계, 3세대 SNS로 승부수를 띄움
 -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네이버 등 국내 포털3사가 3세대 SNS를 선보임
 - 3세대 SNS는 1세대 SNS의 개인 중심 미니홈페이지와 2세대 정보 중심의 SNS를 접목한 것으로, 개인공간과 소통공간이 적절하게 혼합된 지인 폐쇄형 SNS

포털 3사, 3세대 SNS 출시 내용	
포털명	내용
네이버	-PC기반에서 친지나 소규모 지인 모임을 모바일로 옮겨놓은 서비스로, 철저히 아는 관계에 초점을 맞춰 폐쇄성을 강조한 '밴드' 출시 -약 30만개의 모임이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앱을 먼저 설치한 이용자들의 의해 새로운 가입자가 유입되고 있음
다음	-사용자가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과 오프라인 모임의 인맥을 모바일에서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 '캠프' 출시 -친목 친목/모임, 스터디/팀플, 취미, 스타, IT, 반려동물, 스포츠/레저, 게임, 유머/재미, 여행, 패션/뷰티, 사회/정치 등 12개의 카테고리 나뉘 개설했음
싸이월드	-3세대 SNS에 초점을 맞춘 '싸이월드3.0' 버전을 출시 -가수 '싸이'와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 이슈화를 시키는 전략

자료: 각 사 보도자료

4) 검색서비스

- 검색솔루션기업들, '소셜분야'로 사업 다각화
 - 국내 검색, 분석사업에 HP, IBM 등 외국계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
 - 솔트룩스, 와이즈넷 등 검색 솔루션 기업들은 검색기술을 기반으로 소셜 매거진, 소셜 분석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

국내 검색 솔루션 기업들의 소셜 분야 진출 내용

기업	내용
솔트룩스	-소셜 매거진 애플리케이션인 '지니어스'의 베타 서비스를 종료하고 10월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 -2년에 걸쳐 일반인도 손쉽게 자신만의 매거진을 제작할 수 있는 앱인 지니어스를 개발했으며, 시맨틱 검색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검색 기술 등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망라했다고 설명
코난테크놀로지	-2012년 5월 소셜 미디어 분석 서비스 '펄스K'를 출시한데 이어 조만간 대선용 소셜 분석 사이트를 선보일 계획 -소셜 분석을 이용한 다양한 사이트를 발표할 예정
와이즈넷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와이즈티-V2' 제품을 내달 출시할 예정 -기업들이 빅데이터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맨틱 검색 솔루션이며, 와이즈넷의 검색 기반 기술인 '서치 포뮬러원'을 기반으로 함

자료: 각 사 보도자료

5) 빅데이터

□ 국내 IT서비스기업들의 소셜 분석 솔루션 출시 내용

- 빅데이터와 SNS의 기업내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IT서비스업체들이 SNS 분석 서비스 출시
 - 기업들의 SNS와 같은 비정형데이터 분석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
 - 소셜 분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SAS와 같은 글로벌 분석 솔루션 업체와의 경쟁도 관심을 끌고 있음

국내 IT서비스기업들의 빅데이터 솔루션 출시 내용

기업	내용
LG CNS	-2012년 6월 SNS 분석서비스를 출시, 공공, 금융 및 LG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했고, 조만간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를 확대 -SNS 분석서비스는 사용자가 분석센터에서 접속해 메뉴 클릭으로 즉시 이용 가능한 온 디멘드 방식으로 제공
SK C&C	-당초 소셜 타겟 마케팅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현재 보류된 상태 -대용량 데이터분석 및 클라우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관련 제품개발 검토를 진행
한화S&C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빅데이터 아날라이저'를 출시 -시맨틱 통합검색 및 지식베이스 구축, 내외부 지식네트워크 분석, 지식 생태계 분석, 분석정보 시각화 및 리포팅 등 국내 기업 환경에 특화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
LIG시스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소셜 마케팅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유(SMA2U)' 솔루션을 개발

자료: 각 사 보도자료

가. 비즈니스 및 제품 동향

- (한컴) 한동안 침체돼 있던 리눅스 사업을 본격화
 - 공개 SW 확산 분위기에 따라 한컴이 하반기부터 리눅스 중심의 공개 SW 사업을 본격화
 - 공개 SW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등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점이 리눅스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 (KT) 글로벌 로드밸런싱(GSLB)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유클라우드 비즈 맵리듀스'를 출시
 - GSLB 서비스는 서버의 상태 확인 후 정상적인 서버에만 연결하여, 신속한 트래픽 처리 및 장애 대응이 가능
 - GSLB 서비스는 여러 대의 클라우드 서버 중 최적 상태의 서버와 연결 서버 트래픽의 집중을 막아줌
 - 비즈 맵리듀스는 유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하둡(분산시스템) 플랫폼을 자동으로 구축해주는 서비스
 -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IT분야 뿐만 아니라, 유전체 분석, 고객 리서치, 대학 및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더존비즈온) ERP 연동 거래처 신용관리서비스 출시
 - 전사적자원관리(ERP) 내에서 거래처의 신용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NICE 신용관리서비스'를 출시
 - NICE 신용평가정보의 '기업 신용평가 데이터'를 더존비즈온의 ERP와 연계해 제공
- (블루다임) 모바일 앱 개발 생산성 높이는 '엔즈밍FX' 출시
 - 엔즈밍FX는 기획이나 디자인 산출물을 그대로 등록해 별도의 개발 과정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제작 가능
 - 'HTML 가져오기(Importing)'기능을 통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가능

- (사이냅) HWP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는 '사이냅 웹오피스 2013'를 출시
 - 문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MS오피스 및 아래아한글 문서에 대한 호환성을 제공
 - PPT 파일을 다룰 수 있는 '슬라이드'와 엑셀 스프레드시트 XLS 파일을 다룰 수 있는 '셀'도 포함

- (마이다스아이티) 산사태 예방 지반해석SW '솔리웍스' 소개
 - 지반해석설계SW '솔리웍스'에 추가 암반모듈과 비탈면 안정해석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예고
 -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산사태나 광산 등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계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탑재

- (씽크엠)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MEAP) '마이 앱스(MiAPS)'를 출시
 - 스마트워크 활성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MEAP 시장에 진출하고 특화된 모바일오피스 서비스를 개발
 - 마이 앱스는 기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솔루션

- (펜타시큐리티) 품질·환경 관련 ISO 국제 인증 획득
 - ISO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9001:2008과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ISO 14001:2004(이하 ISO 14001)를 획득
 - 품질·환경 관련 ISO 국제 인증을 통해 해외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2012년 8월 국내 SW 주요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 현황

업체명	출시 제품	비즈니스 전략
KT	글로벌 서비스 로드밸런싱 (GSLB) 서비스	-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장애나 재해 상황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함
	유클라우드 비즈 맵리듀스	- 기존 DB 방식으로는 처리가 힘들었던 방대한 데이터를 간단한 명령어 입력을 통해 클라우드의 여러 개의 컴퓨터에서 분산, 분석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산출
더존비즈온	NICE 신용관리서비스	- 거래처의 신용정보에 기반한 다양한 분석 자료를 의사결정, 마케팅 등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
블루다임	엔츠미FX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생산성 높임
핑거포스트	핑거 CRM 스위트	- 고객 및 고객사, 영업활동 및 관리, 고객지원 및 불량,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의 기능을 모두 통합 제공해 한 고객의 모든 관계를 파악
사이넵소프트	사이넵 웹오피스 2013	- 기존 문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MS오피스 및 아래아한글 문서에 대한 우수한 원본 호환성을 제공
코오롱베니트	해빛 DMB	- DMB채널 U1 PLUS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피트니스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
마이더스 아이티	소일웍스	-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산사태나 광산 등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계 정확도를 높임
프랜즈톡	프랜즈	- 대학생들이 시간표를 관리하고 모바일 채팅으로 실시간 수업 정보를 공유
씽크엠	마이앱스	- 기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
이스트소프트	알툴바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의 질을 업그레이드했으며, 현재 접속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페이지를 클릭 한번에 자동으로 번역하는 실시간 페이지 번역 기능도 제공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나. 해외 진출

- 중견IT서비스기업, 시스템통합(SI), 전자정부, 금융IT 등의 사업으로 해외 시장의 IT한류 주도
 - 쌍용정보통신, 현대정보기술, 대우정보시스템 등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은 해외 스포츠 시스템통합(SI) 사업, 전자정부, 금융IT 등 다양한 사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
 - 한화S&C와 코오롱베니트, DK유엔씨 등은 국내에서 구축한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공략

중견IT서비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내용

기업	내용
쌍용정보통신	-2011년 카자흐스탄 동계 아시안게임 대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2012년 글로벌 스포츠 계측 기업인 스위스타이밍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SI사업을 수주
현대정보기술	-2012년 총 433만 달러 규모의 베트남 다낭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 -2011년 11월에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부국장 등 14명이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대정보기술을 방문
대우정보시스템	-2011년 대우인터내셔널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몽골 국세청의 국세 시스템 선진화 사업 계약을 체결
동양시스템즈	-방글라데시 교육부가 발주한 정보통신기술(ICT) 교육훈련원 건립 사업 컨설팅 프로젝트 수주
코오롱베니트	-필리핀 증권시장에 최첨단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
한화S&C	-리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550억 원 규모의 뱅가지와 미수라타 신공항 청사 건축 프로젝트 담당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IT서비스기업, 중국 자동요금징수시스템(AFC) 시장 공략 강화
 -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전철 구간 확대함에 따라 AFC시장도 계속 성장, 2020년 2조 9000억 원 시장 형성 전망
 - 중국 AFC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의 시장 공략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국내 IT서비스기업 중국 AFC 시장 진출 내용

기업	내용
삼성SDS	-2002년 광저우 지하철 1, 2호선 AFC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중국 AFC 사업을 본격화해 베이징 13개 지하철 중 6개 AFC 사업을 수주 -중국 AFC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
LG CNS	-중국 내 사업 경험과 다양한 AFC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2008년 베이징 지하철 1호선 23개 역사, 2호선 18개 역사, 빠통선 13개 역사 등 총 54개 역사(환승역 4개 역사 포함)에 AFC를 구축
SK C&C	-2010년 교통정보시스템 설계사업인 심천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사업을 수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AFC 분야 진출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인피니티헬스케어) 중동 정부병원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공급
 - 아랍에미리트 정부 병원인 알카시미 병원에 25만 달러 규모의 PACS 및 방사선과 정보시스템을 공급
 - 이번 계약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제품과 서비스가 유럽, 미국에 이어 중동의 정부 병원으로 진출한 사례

다. 기업 간 협력 및 제휴 동향

- (KT-KCB)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공동 개발
 - KCB의 지역기반 분석 서비스인 알지오(R-geo)에 KT의 '올레맵'과 지역별유동인구 정보를 결합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에 구축할 계획
 - 양사는 빅데이터를 자사의 마케팅과 고객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다른 기업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한국정보인증-더존비즈온) 전자문서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 한국정보인증이 전자화문서(스캔문서) 물량 확보를 책임지고 이를 더존비즈온 공인전자화작업장(스캔센터)에서 전자화하는 것을 골자로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
 - 한국정보인증은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자화 문서 물량 확보를 담당
 - 한국정보인증이 확보한 전자화문서 물량은 강촌에 위치한 더존비즈온 '신뢰스캔센터'로 보내져 전자화 작업이 진행

- (SAP코리아-한국HP) 국내 빅데이터 분석 시장 공략을 위해 기술 및 영업 협약을 맺음
 - SAS의 비주얼 애널리틱스 솔루션 및 통합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한국HP의 블레이드 서버 제품군과 통합, 보다 안정적인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제품군으로 제공
 - 기존 데이터웨어하우스(DW) 어플라이언스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하둡(Hadoop)' 환경에서도 빅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라. SW 품질 동향

□ 2012년 9월 GS인증 획득 현황

2012년 9월 GS인증 획득 기업 및 제품 현황

기업명	대표자	제품명	특징
소프트베르크	김경호	아크서브	전통적인 백업, 운영체제 백업, 재해복구, 고가용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품
잉카인터넷	주영흠	엔프로텍트 키크립트 엠 (nProtect KeyCrypt M)	iOS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동작하는 모바일 키보드 보안 솔루션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 시 발생하는 사용되는 모바일 단말기 키보드 입력 정보를 보호

자료: 각 사 보도자료

V. 주요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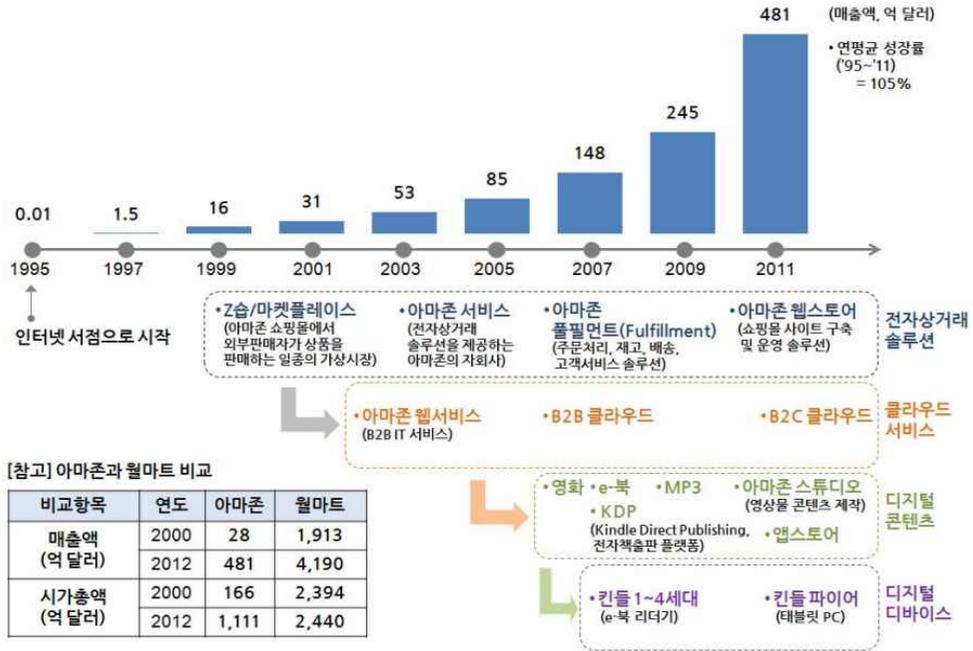
가. 개요

-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기업으로 성장
 - 2011년 매출액이 481억 달러로 2000년 대비 16배 증가, 북미 온라인 소매업 분야 2~11위 기업의 총 매출을 상회
 - 2000년 이후에는 온라인 쇼핑물 이외에도 디지털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디바이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애플, 구글, 삼성전자 등 거대 IT기업을 위협하고 있음
- 아마존의 성공은 변하지 않는 경쟁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 변하지 않는 경쟁요소를 축적하면 규모의 경제효과로 계속해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음

나. 아마존의 사업 위상

- 아마존은 신속한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Get Big Fast'를 추구
 - 상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물류센터를 확장
 - 상품 카테고리: 1개('97) → 21개('12), 물류센터: 1개 → 58개
 - 신사업마다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IT업계에서 입지를 공고화
 - 1999년 전자상거래솔루션 사업, 2002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2007년 디지털콘텐츠(e-북)와 리더기(킨들) 사업을 시작
 - 20세기 후반 유통혁명의 대명사인 월마트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월마존(Walmaz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

아마존의 매출 추이와 사업 확장



자료: SERI(2012. 9. 6)

다. 아마존의 레버리지 전략

- 아마존의 성장 비결은 본업인 온라인 쇼핑몰의 핵심자산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사업 확장
 - 사업부문과 타깃 고객에 따라 4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
 - (동종부문 B2B) 온라인 쇼핑몰과 물류 인프라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배송/고객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솔루션을 제공
 - (이종부문 B2B) IT자원을 활용하여 발전한 클라우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IT자원을 임대
 - (동종부문 B2C) 고객기반을 토대로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업에도 진출
 - (이종부문 B2C) 축적된 디지털콘텐츠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 '킨들 파이어' 출시

사업확장의 방향



자료: SERI(2012. 9. 6)

□ 전자상거래솔루션(1999년~): 동종부문 B2B

-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제품 카테고리 및 물류 인프라를 확대
 - 온라인 쇼핑몰과 물류 인프라를 레버리지로 삼아 전자상거래 솔루션 제공
 - 전자상거래솔루션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품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아마존의 매출과 고객이 증가

□ 클라우드(2002년~): 이종부문 B2B

- 거대 온라인 쇼핑몰과 전산화된 물류센터를 뒷받침하기 위해 IT 인프라,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 개발 및 운영 역량에 꾸준히 투자
 - 아마존 웹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s)가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로 성장

□ 디지털콘텐츠(2006년~): 동종부문 B2C

- 온라인 쇼핑몰의 브랜드 파워와 고객층을 바탕으로 디지털콘텐츠 부문까지 사업 확장
 - 종이책, 음반과 비디오 유통시장 1위 소매기업인 아마존은 디지털 콘텐츠 유통은 물론 공급 및 제작 사업에도 진출

□ 디지털디바이스(2006년~): 이종부문 B2C

- 디지털콘텐츠, 클라우드와 온라인 쇼핑몰을 기반으로 디지털 디바이스 부문에 진출
 - ‘킨들’과 ‘킨들 파이어’ 판매로 아마존의 매출 증가
 - 기기 판매 수익보다는 디지털콘텐츠와 온라인 쇼핑몰 매출을 높이는 저가전략으로 2012년 1/4분기 ‘킨들 파이어’가 180만대 판매

아마존, 구글, 애플의 디지털콘텐츠와 단말기 수 비교

구분	아마존	구글	애플
단말기수	4,200만개	3억 2,500만개	2억 6,200만개
e-북	100만종 이상	400만종	70만종 이상
음악&영상수	1,910만개	1,300만 개	2,200만개
콘텐츠 매출액	68억 600만 달러	-	78억 5,500만 달러

자료: SERI(2012. 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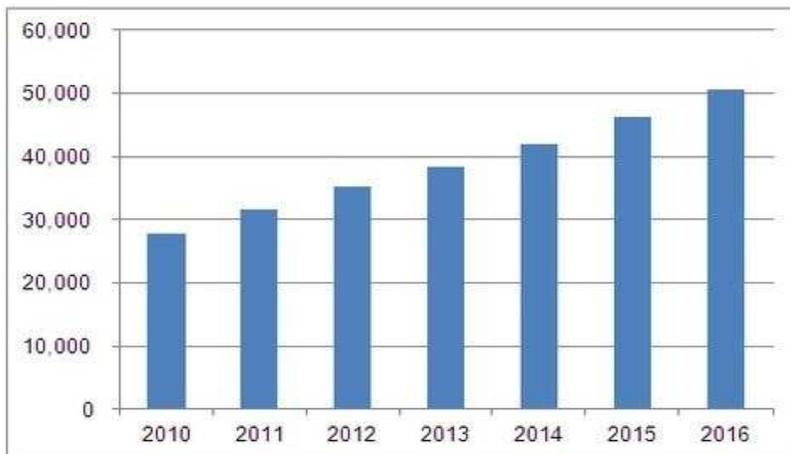
라. 시사점

- 아마존의 레버리지 전략은 디지털 시대에 효과적인 사업확장 방식
 - 아마존의 성공은 변하지 않는 경쟁요소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 타 기업들이 물류와 같은 핵심요소를 아웃소싱한 것과는 달리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의 기초자산인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에 투자를 지속
 - 디지털 시대에는 고객기반, IT인프라 등과 같은 핵심 경쟁요소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
 -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이 융합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핵심 경쟁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확대
 - 축적한 핵심 경쟁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신사업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 빅 데이터(Big Data) 시대가 오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실시간 비정형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분석 수요가 커졌고, 비즈니스 분석 SW 시장이 급성장
- (IDC) 2011년 전 세계 비즈니스 분석 SW 시장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1% 성장률과 317억 달러 규모를 달성하였고, 2016년까지 연평균 9.8%로 성장, 507억 달러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

세계 비즈니스 분석SW 시장 전망, 2010-2016년 (100만 달러)



자료: IDC (2012. 7. 5)

- 빅 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정보’, 즉 소비자 ‘개인 데이터(Personal data)’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수집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음
- 기업이 가공한 ‘소비자 데이터’ 소유권 및 기업에 남아 있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되어 있음

-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간 국내 발생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1억 건에 달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제한되는 법률이 제정

나. 논의의 배경

- (미국 ITRC) 2008~2011년 기간 미국 개인정보 유출사례 발생 건수 추이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비즈니스 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발생 건수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고, 지속 상승
 - 2011년 비중을 보면, 비즈니스 부문이 4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의료 20.5%, 교육 14.1%, 정부/군 11.5%, 금융 6.7% 순으로 나타남
 - 비즈니스 데이터의 하나인 소비자 개인 데이터는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오픈 API 형태이므로, 기업은 특정 앱이나 위젯(Widget), 자사 웹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고객 동의만 거치면 다양한 고객 정보를 수집 가능

미국 개인정보 유출사례 발생건수 추이(2008-2011) (단위: 건)

구분		금융	비즈니스	교육	정부/군	의료	합계
2008년	발생건수	78	240	131	110	97	656
	전체비중	12%	63%	20%	17%	15%	100%
2009년	발생건수	57	208	78	90	65	498
	전체비중	11.4%	41.8%	15.7%	18.1%	13.1%	100%
2010년	발생건수	54	279	65	104	160	662
	전체비중	8.1%	42.1%	9.9%	15.7%	24.1%	100%
2011년	발생건수	28	198	59	48	86	419
	전체비중	6.7%	47.3%	14.1%	11.5%	20.5%	100%

자료: ITRC(2012.6)

- 독일이 소비자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해 그 부정적 파장을 가장 먼저 이슈화한 국가임
 -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사용권을 남용해 독일, 유럽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위반했고, '친구검색' 기능이 이메일 주소록에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온라인 상의 친구를 찾도록 되어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센터총연맹'에 고소
 - 독일지방법원은 2012년 3월 페이스북의 서비스규약 변경을 판결
- 미국 상원도 iOS, 안드로이드 등의 모바일 OS 기업들이 사전 동의 없이 소비자 개인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고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에 조사를 촉구
 -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하자, 애플 CEO인 팀쿡은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한 문제가 이슈화됨

다.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분쟁 내용

- 미국의 소비자 개인 데이터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중 페이스북과 구글의 분쟁 내용이 집중
 - 페이스북의 경우, 2007년에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이하 LBS) 기반의 '비콘(Beacon)'을 출시
 - 이를 통해 제휴사 사이트(2007년 당시 44 개사)를 방문한 이용자의 위치정보 등의 행동 이력을 추적, 뉴스피드에 자동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되어 2009년에 폐지
 - 2009년에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제 3자인 광고주와 공유한 것이 문제
 - 구글은 2010년 자체 SNS 인 '버즈(Buzz)'를 출시했는데, 이용자 연락처 정보가 공개로 초기 설정된 것이 문제가 됨
 - 위치정보인 구글맵 기반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용 촬영 차량을 이용한 WiFi 망 데이터 무단 수집이 문제

라.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쟁점과 분석

- 위의 두 기업의 분쟁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커뮤니케이션 이력('좋아요' 버튼 같은) 및 웹 검색 이력의 무단 활용이 주요 쟁점으로 분석
 - 위치정보 관련 쟁점은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신을 거부해야만 서비스를 사후 차단토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에 대한 문제
 - 미국은 근본적으로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고 '프라이버시 비즈니스'의 구조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지지
 - 두 번째 쟁점은 커뮤니케이션이나 검색 이력, '좋아요(Like)' 버튼을 추적,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
 - 2011년 8월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州) 정부는 '좋아요(Like)' 버튼 이용 웹사이트에 대해 엄중 단속할 것을 발표
 - 미국에서도 웹 사이트 운영자가 모바일광고 등을 위해 소비자 데이터를 일반 기업에게 전달,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

- 두 가지 쟁점을 포함한 강도 높은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확산
 - 2012년 2월 오바마정부가 '연결사회에서의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를 발표, 대통령 명의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A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안을 공개

미 백악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초안

개인의 제어력	소비자는 사업자가 수집하는 자신의 개인데이터를 제어할수 있는 권리를 가짐
투명성	소비자는 사업자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 준수에 관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짐
배경정보의 존중	소비자는 소비자가 제공한 배경정보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개시하는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가짐

보안	소비자는 개인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취급될 권리를 가짐
접근성과 정확성	소비자는 민감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가 불이익을 가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에 접근해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적절한 범위의 수집	소비자는 사업자가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개인의 데이터를 적절한 범위에 한정할 권리를 가짐
설명책임	소비자는 사업자에 의해 개인의 데이터가 본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 장전'에 따라 적절히 취급될 권리를 가짐

자료: 아틀라스(2012. 4)

마. 결론

- 개인정보 보호는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 NHN 등 정부 부처와 기업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HW, SW, 솔루션 등 기술 인프라 사업과 개인 데이터 유출 탐지를 지속 관리하는 사업 등이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VI. 월간 SW 이슈 분석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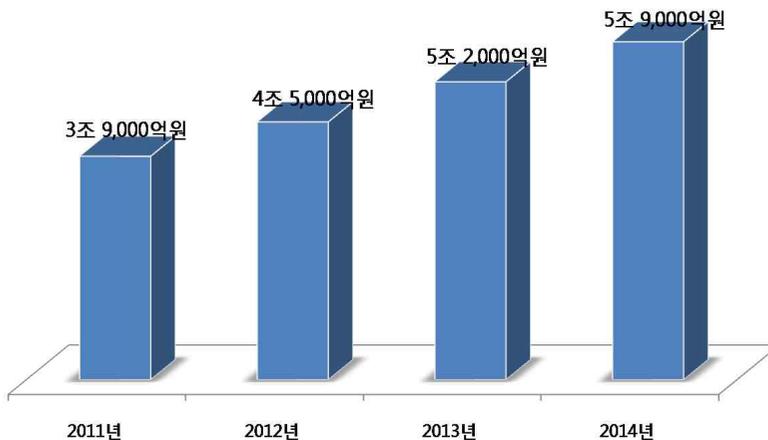
-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유선으로 연결된 데스크톱기기만의 문제로 여기던 보안문제가 스마트 기기에서도 중요하게 부각
 - 개인의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보안 이슈들이 등장
 - BYOD(Bring Your Own Device) 환경이 기업의 IT 인프라 구축의 기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해당 기기들에 대한 보안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가 중요해짐
 - 기업의 BYOD 도입은 공간과 시간에 상관없이, 개인의 IT기기를 이용해 기업의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효율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나. 스마트워크 · BYOD 시대의 도래

- 2000년대 중반 이후 많은 기업들은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
 -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해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일명 '스마트워크를 통한 모바일 오피스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 스마트워크 및 BYOD 환경 구축은 업무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비용 절감, 업무만족도 향상, 재택근무자의 생산성 증대 등의 기대효과로 크게 주목

- (KT경제경영연구소) 세계 모바일 오피스 시장은 2013년 1,29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 국내 모바일 오피스 시장은 올해 4조 5000억 원 수준이나 오는 2014년에는 5조9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국내 모바일 오피스 시장 전망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1)

다. 스마트워크 · BYOD 시대의 보안 위협

-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보안문제 부각
 - 휴대성이 강한 모바일 기기를 분실하게 되면 정보유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
 -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사용자 개인의 신상정보의 유출은 물론이고, 업무대외비 등의 중요정보가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
 - PC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기의 특성으로 인해 악성코드가 활개를 칠 수 있어 정보유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
 - (맥아피) 2012년 보안 위협 통계 보고서를 통해 모바일 악성코드가 2011년 대비 약 700%로 증가했다고 발표

- 2012년에 총 13,000여종의 신규 모바일 악성코드가 등장해, 1,800여종이 등장한 2011년에 비해 그 수가 약 700% 상승
- 이와 같이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보안에 대한 인지는 많이 떨어지는 상태임
- 현재까지 국내에서 스마트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는 스마트폰 제품 내에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기본 백신 제품임
- 보안업계에서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 인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

라. 모바일 기기를 위한 보안 솔루션

- 보안업계에서는 개인용 스마트폰 전용 백신, MDM솔루션, MAM솔루션, 스마트폰 도난 방지 솔루션 등 다양한 스마트폰 솔루션을 선보임
- 개인용 스마트폰 전용 백신은 PC와 동일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의 보안상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솔루션임
 - 개인용 스마트폰 전용 백신의 배포 방법은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번들 방식과 유료 혹은 무료로 별도 구매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뉘어 있음
- MDM솔루션은 기업의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 체계 구축을 돕는 솔루션임
 - 기업의 네트웍 내부에서 임직원의 Mobile Device를 관리하여 정보유출 방지, 자산관리 등 보안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함
- MDM솔루션은 모바일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위협, 모바일 단말의 통제 및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적의 솔루션임
 - 기업 및 기관에 구축되고 있는 인프라 환경과 완벽히 연동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보장

MDM 솔루션 대표적 기능

	다양한 OS / 디바이스 지원 iOS 공식 지원, 제조사 안드로이드 버전 지원		출입시스템/위치기반 통제 출입시스템 및 위치정보기반(GPS/AP/4G) 연동하여 보안정책을 자동 적용
	애플리케이션 원격 관리 / 배포 앱 배포 관리, 플렉/화이트리스트, 사내 앱스토어		개인사용자를 위한 서비스포털 임직원의 셀프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포털
	비밀번호관리 / 암호화 등 보안관리 그룹/부서/사용자별 보안정책 관리 비밀번호 정책, 데이터 암호화, 백신		기업 IT 자원/시스템과 연동 및 적용 레저서시스템 연동, 인사DB와의 연동한 정책적용
	디바이스 자산 관리 기업내 사용자 및 그룹별 디바이스 자산 관리		위치추적 물류 트래킹 및 영업 동선 파악
	분실 디바이스 관리 분실 디바이스 위치 조회 및 원격 제어		강력한 매체 제어 기능 와이파이, 카메라, 화면캡춰 등 매체제어를 통한 기업 정보 유출 보호

마. MDM솔루션에서 MAM솔루션으로 진화

- 보안업계에서는 스마트폰 단말기에 대한 보안은 물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이 점차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위·변조를 활용한 보안 공격형태가 발견됨에 따라 MDM은 물론이고 MAM(Mobile Application Management)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MAM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App delivery), 보안(App security), 업데이트(App updating),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 사용권 허가(User authorization), 버전 확인(Version checking), 알림 서비스(Push services), 리포팅과 트래킹(Reporting and tracking)을 제공
 -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선보인 기업들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MDM 솔루션에 대한 개발은 물론, MAM 솔루션 개발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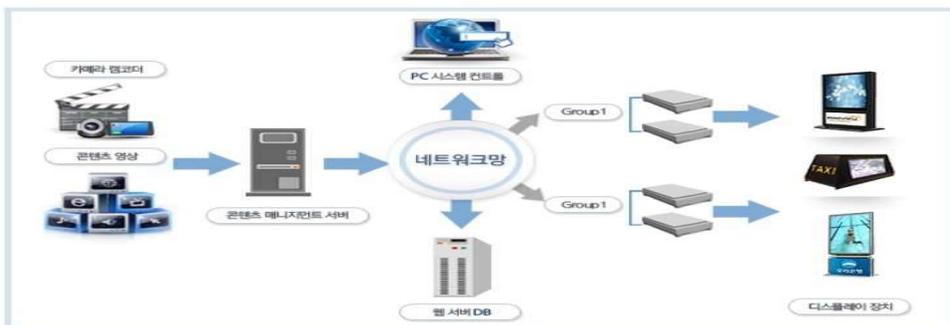
가. 디지털 사이니지의 개요 및 발전

-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공공장소나 상업 공간에서 문자·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임
 - 공공장소에서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장치로서 기존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에 SW, HW, Contents, Network등 다양한 IT기술이 접목된 정보매체
 - 교통, 교육 분야, 병원, 은행 등의 공공시설, 쇼핑센터, 대리점 등의 상업 시설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며, 주로 광고 및 홍보, 실시간 정보 알림 등에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의 개념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	디지털 사이니지	
Contents	사진, 동영상		사진, 동영상, 양방향서비스	
Management	수동적 콘텐츠 교체		IP 네트워크 활용	
User	시선응시	참여 및 사용자 경험		

디지털 사이니지의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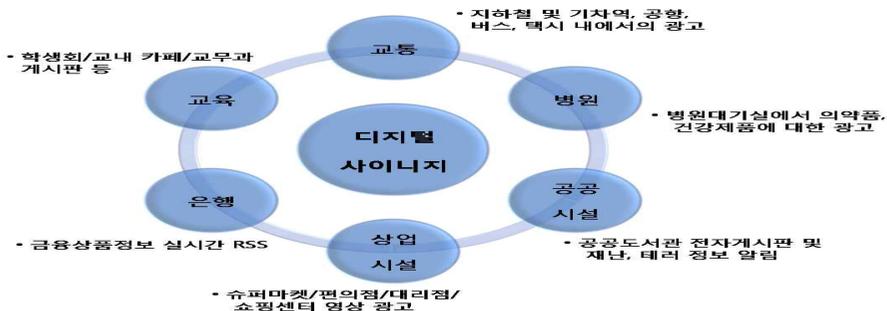
자료: 한국디지털사이니지협회

- 광고 매체로서의 가치, IT기술 발전, 미디어에 대한 인식 변화로 주목 받고 있음
 - 구매 접점에서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 제공으로 내용가치, 영상미, 자극 강도를 높여 소비자 관심 유도
 - IP 네트워크와 광고 관리 기술발전으로 중앙 집중 콘텐츠 관리 및 지역/시간/매장 등에 따른 차별화된 광고 전달로 비용대비 광고 효과 우수

나. 디지털 사이니지의 특징

- 디지털 사이니지는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반 디지털 영상 장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을 지님
 - 고화질로 정보와 광고 콘텐츠, 메시지를 특정 위치, 특정 시간에 원하는 대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
 - 전통적인 광고, 홍보에 비해 투자에 대한 최상의 이익을 제공 가능
 - 디지털 사이니지가 사용자의 목적성을 이루며 고객별 타겟이 가능한 매체로서, 상황에 따른 정보 및 광고의 전달이 매우 효과적
 - 디지털 사이니지의 응용 범위는 공공 정보(뉴스, 날씨 및 위치 제공), 내부정보, 광고, 브랜드 구축(브랜드 이미지), 고객 행동영향(고객 행동 분석), 고객 경험 강화 등으로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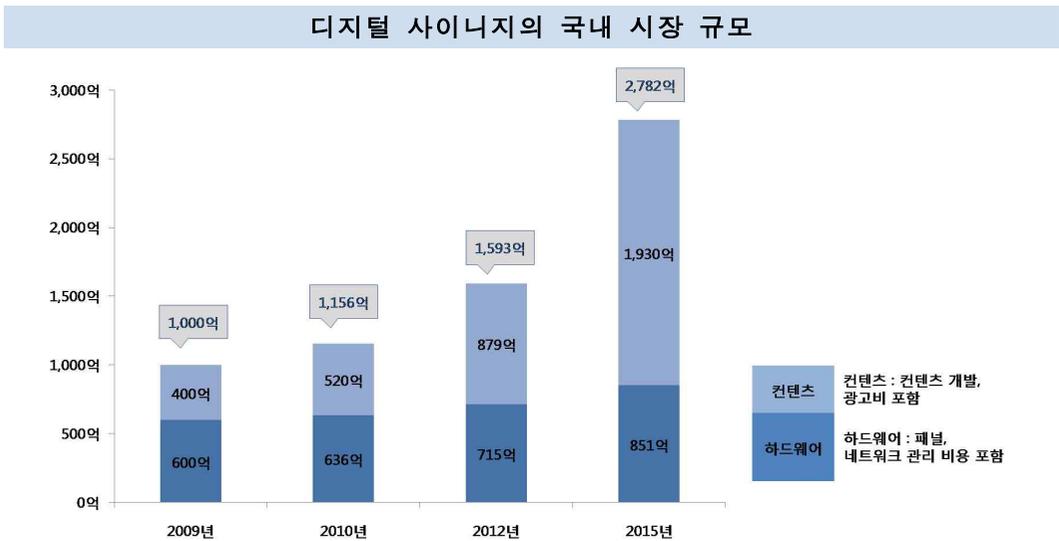
디지털 사이니지의 응용 분야



자료: 한국디지털사이니지협회

다. 디지털 사이니지 동향 및 활용분야

- (KT경제경영연구소)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2012년 약 1,593억 원으로 전망되었고, 2015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2,782억 원으로 예측
 - 지하철 내 다양한 광고 매체와 버스 쉼터 등의 교통수단을 위주로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확대 및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미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대중적 인식이 크게 상승
 -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된 사업이 점차 보편화 되고 있음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 다양한 사용자 경험 제공을 통해 고객 소통의 접점으로 활용가치 향상을 위한 영상처리, 패턴인식, 미디어플레이어의 신기술 접목 시도 지속
 - 생동감 있는 콘텐츠 표현을 위한 각종 영상처리 신기술 적용(증강현실, 3D, 홀로그램 등)
 - 안면, 동작인식 등 자동 패턴 인식기술 적용으로 새로운 UI/UX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분석 및 행동패턴을 DB화하여 개인화 광고에 활용
- 모바일 기기의 휴대/이동성과 디지털 사이니지의 공간적 특성

(Out Of Home)으로 두 기기 간 연동을 통한 신규 서비스가 지속 출시

- 콘텐츠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폰으로 광고 동영상 재생 등 다양한 방식의 모바일 활용 가능
- 일관성 쌍둥이처럼 얼굴이 똑같이 생겼을 경우에는 잘못 인식할 수 있음
- 예술작품과 광고를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Out of Home 미디어로서 기업 및 기관 이미지 제고 효과 제공
- 서울스퀘어는 예술 작품을 대형 LED에 디스플레이하여 건물 자체의 상업적, 심미적 가치를 상승시켜 서울역 앞의 랜드마크로 등장
- 통신업체들이 중심이 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확산이 현재 본격화되고 있지만, IT서비스업체들은 B2B관점에서의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개척에 중점
- ITS(지능형교통망)과 지하철 스크린도어 시장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접목하여, 해외시장 개척 진행

IT서비스 기업들의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진출

기업	내용
삼성SDS	-‘디지털 스크린도어’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사이니지는 현재 서울대입구, 혜화, 신촌역 등 총 3개 역사에 설치 운영 -삼성SDS는 디지털사이니지를 ITS 사업과도 연계시켜 확장시켜 나간다는 전략
LG엔시스	-독자적인 디지털사이니지 솔루션을 통해 B2B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LG유플러스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사이니지와 연계사업으로도 추진
동부CNI	-디지털사이니지 솔루션 전문기업인 비비엠씨와 사인캐스트(SignCast)의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B2B 시장 공략에 나섬
LG CNS	-최근 선보인 스마트그린솔루션 제품군에 디지털사이니지 솔루션을 포함시켜 스마트 시티 사업에 진출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라. 디지털 사이니지의 과제

- 디지털 사이니지는 방송, 통신, 광고, 유통, 공공서비스 등 매우 다양한 산업이 연계된 성장 잠재성이 큰 산업이지만, 실질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다양한 사용자 계층을 고려한 양방향 콘텐츠 개발로 부가 수익 창출 및 다양한 고객층 확보 기회를 잡아야함
 - 유동인구 분석 및 고객 취향 데이터 분석 등 정교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로 수익 창출
 - Ubiquitous 환경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가치 이용